

세상의 노래를 붙잡고...

“저... 나, 포이에르바흐야!”

순식간에 20년을 거슬러 오르게 만드는 목소리였다.

“우리 ‘똥82’ 들 한번 뭉쳐보자구.”

출판사에 전화해서 겨우 니 연락처 알아냈다, 덧붙이는 바람에 ‘반갑다’, ‘어떻게 사니’ 흔한 인사말도 못 내밀고 겨우 약속 장소만 물었다.

“강남 역 앞에 ××빌딩 있지, 거기 12층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똥82’의 여운 때문에 한동안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포이에르바흐’라니! 피식 웃음을 흘리다가, 문득 이름 하나씩마다 달려나오는 얼굴들에 하릴없이 서성거렸다. 프르동, 레닌, 바쿠닌, 헤겔, 자수리치, 블랑키... 그들을 내 ‘이념의 죽마고우(竹馬故友)’라고 불러야 할까.

이념의 죽마고우(竹馬故友)

우리들이 처음 만난 것은 1982년 이른 봄이었다. 흐린 전구 밑에 자욱한 담배 연기와 술 냄새가 뒤엉킨 서클룸에서 우리는 첫 대면을 했고, 1년 동안 한 굴에 든 여우들처럼 으살붙어 지냈다. 그 시절을 생각할 때 떠오르는 사건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청송대 뺨따사건’이었다. 창선이가 서클룸에서 언쟁을 하다가 한 여학생의 따귀를 때린 것이 발단이었다. 사건 현장에 없었던 나를 비롯한 대부분의 ‘똥82’ 들은 비상소집을 받고 청송대에 모여서 선배의 일장연설을 듣고서야 사태의 전말을 알았는데. “우리 서클 역사상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은 처음이다. 이 사태를 책임을 지는 뜻에서...” 운운하더니, 갑자기 선배들이 엎드려뺨쳐를 하고 자기들끼리 돌아가며 뺨따를 치는 것이 아닌가. 우리 1학년생들은 숨도 크게 못 쉬고 그 장면을 목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당혹스럽고 난감하고, 좀 유치하다 싶으면서도, 그렇게 느끼는 나 자신이 너무 걸똥 들린 개인주의자인지도 모른다는 반성이 들고, 신선한 충격이랄까, 처음으로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

또 다른 기억은 겨울방학의 합숙이었다. 그때는 이미 우리가 몇 차례의 학내시위를 경험하고, 시위 주동자로 뜬 선배가 끌려가는 장면을 목격하고, 술 마시고 울고 토하고, 농활 갔다 오고, 가을에 접어들자 첫 가두투쟁에 참여하는 등, 소위 ‘운동권’이 되어 가는 과정을 착실히 밟은 뒤였다. 소래 근처의 농촌에서 우리는 열흘 동안 오전에 일어강독을 하고 오후에는 농가일을 돕고 저녁에는 혁명사를 읽고 토론했다. 그 뻑뻑하고 단조로운 일과 속에서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날 우리는 혁명사에서 마음에 드는 인물들을 골라 자기 별명으로 삼기 시작했다.

과격하고 충동적인 ‘바쿠닌’에 공상적 사회주의자인 ‘프르동’과 맹동주의자 ‘블랑키’가 등장했고, 감히 ‘맑스’를 자처하다가 여론의 지탄을 받고 ‘포이에르바흐’로 낙착된 녀석도 있었다.

여학생들에게 인기가 있었던 이름은 자수리치와 로자, 콜론타이었다. 두 사람이 경쟁이 붙었던 ‘레닌’은 결국 닭싸움으로 승부를 갈라야 했다. 그렇게 혁명가의 이름을 하나씩 골라잡고 으쓱대던 모습을 돌이켜보면 우리들은 말 그대로 이념의 죽마고우(竹馬故友), 다리 사이에 대나무 말을 타고 ‘한 혁명’ 했던 친구들인 셈이었다.

커밍아웃

약속 장소인 ‘레닌’의 사무실에 들어서자 ‘프르동’과 ‘블랑키’와 ‘자수리치’가 먼저 와 있었다. ‘로자’가 들어온 뒤에 ‘헤겔’과 ‘바쿠닌’이 연이어 합류하자, 사무실 근처의 회집으로 자리를 옮겼다. 술이 몇 잔 돌아가자 화제는 자연스럽게 20년 전 ‘뺨따사건’으로 옮겨갔다.

“내가 완전히 마초였지. 근데 나 때문에 선배들이 뺨따를 맞는 걸 보니까, 미안하고, 좀 유치하고 속보인다 싶기도 했지만, 침으로 인간관계에 대해서 눈이



뜨이는 기분이라까, 약간 감동 먹은 것도 같고... 그때부터 인간이 좀 된 것 같아.”

레닌의 멋쩍은 반성에 콜론타이가 해묵은 원망을 꼬집어냈다.

“근데, 그때 우리도 같이 맞아야 한다고 설레발 친 녀석이 누구였지?”

“누구겠냐? 본히퍼지!”

“본히퍼, 그 쇼맨십이 어디 가니? 개 잘난 척하는 바람에 우리 여자들까지 엉덩이 맞았잖아. 그날 따라 하필 치마는 입었지, 난생 처음 엉덩이를 각목으로 맞는데, 지금 같으면 ‘야! 맞고 싶으면 너나 맞아라!’ 했을 텐데 그러지도 못하고...”

‘본히퍼’가 전주에 있는 관계로 그 자리에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자수리치, 그러는 년 나중에 본히퍼랑 연애했다며?”

“그거야 뭐... 개가 나 좋아해서 두어 번 만났는데, 유인물 사건으로 갑자기 감방에 가게 됐잖아. 그래서 ‘빵바라지’를 했지. 나오자마자 몇 번 만나고 금방 헤어졌어.”

“근데 포이에르바흐가 군대가기 직전에 노가다해서 번 돈으로 도스토예프스키 전집을 사서 로자한테 주고 갔다는 거, 정말이냐?”

“앗! 그런 낭설이!”

“로자는 프르동을 좋아했던 거 아냐?”

이쯤 되자 모두들 ‘커밍아웃’ 하는 분위기가 되었다. 콜론타이와 바쿠닌과 헤겔이 삼각관계 엮다는 등, 소문은 그랬지만 진상은 다르다는 등, 블랑키는 매번 헛물만 컸다는 등...

어느덧 자정 가까운 시각이었고, 우리는 노래방으로 자리를 옮겼다. 음향기기의 볼륨을 줄여놓고 대화를 나누고 간간이 마음 내키면 나가서 노래를 불렀다. 운동가요와 왕년의 십팔번이 나왔고, 살면서 새로 배운 노래들이 등장했다. 헤겔이 ‘떠나가는 배’를 부르고 레닌이 ‘킬리만자로의 표범’을 불렀다. 프르동이 십팔번인 ‘뜨거운 안녕’을 부르자 로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 술잔을 붙잡고 세상의 노래를 붙잡고 남자 남자 남자의 눈물이 미워요...”

앗, 로자가 심수봉을! 소스라치는데, 로자는 “사실은 이게 내 본질이었어!” 내친 김에 ‘사랑밖에 난 몰

라’를 연이어 불렀다. 로자의 커밍아웃에 망가지기로 작정한 듯한 포이에르바흐가 ‘네박자’로 응답하고, 기업의 영업부장인 블랑키는 ‘카스바의 여인’을 부르며 허리 돌리는 삼바춤을 선보였다. 찰랑찰랑, 20년 전쯤에, 광야에서, 사랑의 이름표, 나이 서른에 우리는, 몰래한 사랑... 운동가요와 뽕짝이 뒤섞이는 풍경 너머로 우리들 20년 세월이 뒤엉켜 돌아가고 있었다.

나이 마흔에 우리는...

‘똥82’들과의 20년만의 해후로 한동안 후유증을 앓았다. 서로의 별명과 애창노래를 기억해주는 옛 친구들을 만난다는 것, 더구나 20년 전 연애편계를 커밍아웃하는 것은 얼마나 재미난 일인가. 그런데도 후유증이라고 표현할 만큼 복잡다단한 감정이 교차했던 것은 아마도, 그 시절 우리가 꿈꾸던 세상을 내오지 못했다는 패배감에, 그런데도 다들 자기 앞가림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자괴감 때문이었으리라. 게다가 그 자리에 오지 않았던 친구들, 자본주의 시장으로 너무 멀리 떠나버렸거나 삶의 질곡에 너무 깊이 잠겨버린 친구들에 대한 안타까움에, 이런 종류의 만남이 한낱 자기 위안에 머물거나 배타적인 학맥과 줄대기로 연결될지도 모른다는 경계심까지, 감정의 스펙트럼이 울퉁불퉁했다. 그런데도 가슴 한켠에 이는 꿈틀거림은 또 어찌 해야 할지. 이 만남이 우리의 일상에서 한 줌 소금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나눴던 반가움과 따뜻함을 성숙과 포용이라고 부를 수는 없을까... 하지만 한번의 술자리로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믿기엔 인생이란 얼마나 촌잔이었던가.

이 시시결령한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지어야 할지? 여러 날을 고민하다가 결국 나는 이 ‘후일담’을 ‘관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결론짓지 않겠다. 운동가요와 뽕짝이 뒤엉켜 돌아가는 세상에서, 그렇게 ‘세상의 노래를 붙잡고’ 한 20년 더 살아보기로 했다.



정혜주

1963년 출생

1988년 무크지 「노동문학」에 중편소설 ‘동지와 함께’로 등단, 2000년 계간 「창작과 비평」에 중편소설 ‘강·섬·배’ 발표, 2003년 소설집 「내 안의 불빛」 출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경제와 더불어 정치민주화에서도
놀라운 성취를 이룩한 한국민의 당당한 발자취를.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한국의 저력, 한민족의 비전을
이야기 할 때마다 소중한 민주화운동의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의 위대한 역사가 생활속에서 참모습을 드러내는 곳
뜨거운 열정이 더불어 사는 삶의 원동력으로 되살아 나는 곳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는 바로 그 곳에서
국민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